

제공일자	2014. 1.28(화)	담당자	전성주 연구위원
홍보담당	김세환 부장(02-3775-9051)	연락처	02-3775-9039, 010-2125-4760
			총2매

제목 : 위험전가 기법을 이용한 국가 재해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

- 보험연구원(원장 강호)의 전성주 연구위원은 『위험전가 기법을 이용한 국가 재해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』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(계간 보험동향 2013년 겨울호 테마진단).
- 우리나라 자연재해의 주요 원인은 태풍과 집중호우이며 2012년의 경우 총 22회의 자연재해로 16명의 인명 피해와 1조 892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음.
 - 재산 피해 규모가 가장 컸던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경우 1조 113억원의 복구 비용을 발생시켰는데 비용의 대부분은 국고(7,187억 원)와 지자체(2,271억 원) 등 정부 지원에 의해 부담함.
- 자연재해 발생시 피해복구액의 대부분을 정부가 감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정부 차원에서 자연재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.
-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액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준비는 재해 발생 전(pre-event)과 재해 발생 후 복구 재원 마련 수단(post-event financing instrument)으로 구분됨.
 - 재해 발생 전에는 예비비 항목 설정이나 예비 펀드(reserve fund)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거나, 민간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혹은 자본시장을 통한 조건부 용자 계약이나 대재해 채권(Catastrophe bond) 발행 등을 통해 외부 위험전가 수단을 선택할 수 있음.
 - 재해 발생 후에는 먼저 공공예산의 항목 조정을 통한 예산 전용과

국채 발행을 통한 외부 차입, 증세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, 이외에도 해외 국가나 단체로부터 구호물자와 구호금을 받을 수 있음.

□ 각각의 복구 재원 마련 수단에 따라 장단점을 파악하여 정부의 재정 상태, 재해리스크 노출 정도와 경제발전 계획 등에 따라 피해 복구 재원 마련 계획을 수립해야 함.

□ 멕시코의 자연재해펀드(FONDEN), 캐리비안 지역의 대재해위험 보험공단(CCRIF), 태국의 국가재해 보험기금(NCIF) 등은 빈도가 높은 재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한편, 심도가 높은 재해에 대해서는 다양한 리스크 전가 기법을 이용하고 있음.

○ 멕시코의 경우 10억 달러 규모의 자연재해 리스크에 대해서는 기금을 통해 담보하는 한편,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자연재해 리스크에 대해서는 4억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함.

○ 이와 별도로 3년 만기 대재해 채권 발행을 통해 지진이나 허리케인 피해에 대해 응급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유동성 자금 마련을 담보함.

□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자연재해의 피해규모를 살펴보면 가장 적은 해(2008년 637억 원)와 가장 큰 해(2002년 6조 1,153억 원)의 편차가 6조 이상일 정도로 피해규모의 편차가 매년 달라짐.

○ 2013년도 정부예산을 살펴보면, 정부는 재해복구로 사용가능한 예비비로 3조 9천억 원을 책정함.

□ 최근 증가하는 기상이변이나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을 감안해 볼 때 2002년 발생한 재산피해 이상의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예비비 이외의 다른 위험 전가수단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.

첨부 : 테마진단 “위험전가 기법을 이용한 국가 재해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”. 끝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kiri.or.kr>